새 출발하는 광주FC…"첫 승 제물은 제주"

K리그1, 2월 28일 개막…이정규호, 3월 1일 제주 원정
3월 7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인천 상대로 홈 개막전

K리그1 2026시즌이 2월 28일 대장정을 시작한다. 이정규〈사진〉 감독 체제로 새로 출발하는 광주FC는 3월 1일 제주에서 시즌 첫 승 사냥에 나선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이 13일 2026시즌 K리그1 정규라운드 1~33라운드 일정을 발표했다.

'디펜딩 챔피언' 전북현대를 필두로 지난 시즌 K리그2 우승팀인 인천유나이티드와 수원FC와의 승강플레이오프에서 승격 티켓을 거머쥔 부천FC 1995가 새로 가세해 2026시즌 경쟁을 전개한다.

강등 1년 만에 K리그1으로 돌아온 인천이 새 시즌의 막을 연다.

인천은 2월 28일 오후 2시 인천축구전용경기장에서 FC서울을 상대로 '복귀전'을 치른다.

같은 시각 울산문수축구경기장에서는 명예 회복을 노리는 울산현대의 첫 무대가 펼쳐진다. '원클럽맨'출신 김현석 감독에게 새로 지휘봉을 맡긴 울산은 지난 시즌 돌풍의 주역인 정경호 감독의 강원FC를 상대한다.

같은 날 오후 4시 30분에는 김천상무와 포항스틸러스의 개막전이 열린다.

두 시즌 연속 3위에 올랐던 김천은 새 사령탑 주승진 감독을 앞세워 박태하 감독이 이끄는 포항과 맞대결한다.

3월 1일에는 지난해 압도적인 질주로 우승컵을 탈환한 전북과 창단 18년 만에 K리그1 진입에 성공한 부천의 승부가 펼쳐진다.

거스 포옛 감독을 떠나보낸 전북은 정정용 감독에게 연패 임무를 맡겼다. 부천은 구단 최초의 승격을 이룬 이영민 감독을 내세워 역사적인 K리그1 데뷔전을 치른다.

같은 날 오후 4시 30분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는 광주의 새로운 도전이 시작된다.

이정효 감독이 수원삼성으로 이적하면서 이정규 감독으로 새 판을 짠 광주는 역시 세르지우 코스타 감독 체제로 변화를 준 제주유나이티드를 상대로 개막전에 나선다.

'소유와 압박'을 내세운 이정규 감독과 '주도하고 압도하는 축구'를 각오한 코스타 감독, 두 신임 사령탑의 지략대결이 관전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3월 2일 오후 2시에는 대전하나시티즌과 FC안양이 시즌 첫 경기를 치른다.

2025시즌 준우승팀 대전은 우승 목표를 위해 엄원상, 루빅손, 조성권 등을 영입하면서 전력을 강화했다. 이에 맞서는 안양은 승격 첫해였던 지난 시즌 경험을 바탕으로 올 시즌 더 높은 곳을 올려보고 있다.

K리그1 12개 팀은 개막전을 시작으로 정규라운드 33라운드까지 일정을 소화한 뒤 파이널라운드에 돌입한다.

1위부터 6위까지 파이널A 그룹에서 '우승'을 목표로 34라운드부터 최종 38라운드까지 5경기를 소화하게 된다. 7~12위 팀은 파이널B그룹에서 최하위를 피하기 위한 생존싸움을 벌이게 된다.

내년 시즌 K리그1 구단이 12개에서 14개팀으로 확대되고, 연고지 협약이 끝난 김천상무가 자동 강등되면서 '다이렉트 강등'은 없다. 하지만 최하위가 될 경우 승강플레이오프를 치러야 하는 만큼 순위 싸움은 뜨겁게 전개될 전망이다.

한편 제주에서 2026시즌을 여는 광주는 3월 7일 홈팬들을 만난다. 광주는 이날 오후 4시 30분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인천을 상대로 홈개막전을 치른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헤이스, 이정효 감독 따라 수원으로

광주서 활약한 전천후 공격수

이정효 감독이 지휘하는 프로축구 K리그2 수원삼성이 지난 시즌 K리그1 광주FC의 핵심 공격수로 활약한 헤이스(33·브라질·사진)를 품었다.

수원은 13일 구단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헤이스의 영입을 발표했다.

헤이스는 이정효 감독의 품에서 실력이 검증된 전천후 공격수다.

2021년 광주에 입단하면서 K리그 무대에 데뷔한 헤이스는 첫 시즌 30경기에 출전해 4골 5도움의 좋은 활약을 펼쳤고, 이듬해 팀이 K리그2로 강등되고서 39경기 동안 12골 4도움의 맹위를 떨치며 팀의 1부 승격에 큰 힘을 보탰다.

헤이스는 2023년 제주SK FC로 이적해 2시즌 동안 64경기(12골 7도움)를 뛰고 지난해 광주로 복귀했다.

지난해 이정효 감독의 지휘 아래 스트라이커를 발끝 감각이 되살아나면서 37경기 동안 10골 2도움을 작성하며 1부 무대에서 처음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하는 기쁨을 맛봤다.

헤이스는 지난해 광주와 계약이 끝나면서 자유계약(FA) 신분을 얻었고, K리그2 수원의 지휘봉을 맡은 이정효 감독의 러브콜을 받고 기꺼이 K리그2 팀으로 이적을 선택했다.

측면은 물론 중앙까지 다양한 공격 포지션을 소화하는 헤이스는 구단을 통해 "수원 유니폼을 입고 팬들과 함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갈 생각에 설렘과 기쁨을 느낀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연합뉴스

회심의 리턴 이탈리아의 마테오 베레티니가 13일(현지시간) 멜버른 쿠용 클래식 남자 단식 경기에서 미국의 러너 티엔에게 리턴을 치고 있다. /연합뉴스

챔필 다시 뜨거워진다…KIA 새 시즌 출발

22일 일본 아마미오시마 1차 캠프 출발

챔피언스필드가 다시 뜨거워진다.

KIA 타이거즈는 지난해 8위로 추락하면서 일찍 시즌을 마무리하고 '가을 잔치'의 관람자가 됐었다. 2024시즌이 끝난 뒤 '우승팀'으로 분주한 겨울을 보냈던 것과 비교하면 고요한 스토브리그였다.

팬들 입장에서는 박찬호와 최형우의 FA 이적 등 아쉬운 소식만 이어진 추운 겨울이기도 했다.

지난해 실패를 곱씹은 선수들은 묵묵히 새 시즌을 위한 준비를 이어왔다. 익숙한 챔피언스필드에서 구슬땀을 흘린 선수도 있고, 고향에서 재충천을 하고 새로운 시즌을 준비한 선수들도 있었다.

전국 곳곳에서 새 각오를 다지고 있던 KIA 선수들이 다시 챔피언스필드로 모이고 있다.

KIA는 오는 22일 새 시즌을 위한 여정에 나선다.

새로운 1차 캠프지로 선정한 아마미오시마가 KIA의 목적지이다. 직항이 없는 만큼 캠프 선수단은 도쿄에서 1박을 한 뒤 아마미섬으로 이동하게 된다. 24일 휴식일을 보내며 여독을 푸는 KIA는 비활동기간 종료에 맞춰 25일부터 본격적인 훈련을 시작하게 된다. 캠프 출발에 앞서 KIA 선수들은 새로운 마음으로 카메라 앞에 선다.

15·16일 2026시즌 프로필 촬영이 진행되면서 선수들은 모처럼 유니폼을 갖춰 입고 한 자리에 모인다.

고향에서 비시즌을 보냈던 선수들은 프로필 촬영 일정에 맞춰 속속 광주로 이동하고 있다. 이와 함께 챔피언스필드도 활기를 띠고 있다.

강도 높은 캠프 훈련에 앞서 챔피언스필드가 뜨거운 워밍업 무대가 될 전망이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광주일보 74년 – 유튜브 3천만뷰 돌파

'두 번 실수는 없다' WBC 선제 준비 착수

대표팀, 1차 캠프지 사이판 이동…예년보다 한 달 앞서 훈련 소집

류현진(왼쪽), 김혜성을 비롯한 한국 야구대표팀 선수들이 9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서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1차 캠프지인 사이판으로 출국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는 3월 개막하는 제6회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을 앞둔 한국 야구대표팀은 역대 가장 빨리, 가장 앞서 준비를 시작했다.

류지현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지난 9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1차 캠프지인 북마리아나 제도 사이판으로 떠났다.

한겨울인 한국과는 달리, 적도에 가까운 섬 사이판은 낮 최고기온이 30도를 훌쩍 넘는다.

지난 2023년 WBC 당시 미국 애리조나주 투손에 캠프를 차렸다가 이상 한파 때문에 컨디션 조절에 실패했던 한국 야구대표팀은 이번에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며 사이판에 1차 캠프, 일본 오키나와에 2차 캠프를 차린다.

역대 WBC 대표팀이 전체 소집 캠프를 두 차례로 나눠 치르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시즌 개막에 앞선 3월 초에 열리는 WBC는 투수들의 몸 상태가 성적과 직결한다.

사이판 캠프 투수 조장 류현진(한화)을 비롯한 선수들은 태양이 작열하는 사이판에서 순조롭게 몸을 만들어가고 있다.

한국 야구대표팀은 앞서 치른 5번의 WBC 모두 2월 중순에 캠프를 소집했다.

'국민 감독' 김인식 감독이 이끈 2006년 초대 대회는 2월 19일 일본 후쿠오카돔에 보여 열흘 정도 돔구장 적응 훈련을 마친 뒤 곧바로 도쿄로 이동했다.

결승에 진출했던 2009년에는 2월 15일 미국 하와이 전지훈련으로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한국 야구대표팀은 2013년과 2017년, 2023년까지 3개 대회는 모두 조별리그에서 고배를 마셨다.

2013년 WBC는 조별리그가 열린 대만 타이중 인근 더우류 구장에서 2월 12일부터 훈련했고,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조별리그가 벌어진 2017년 WBC 땐 2월 12일부터 일본 오키나와에 캠프를 차렸다.

그리고 최근 대회인 2023년 WBC는 이강철 감독의 소속팀 KT 캠프가 차려진 미국 애리조나주로 향했으나 결과가 좋지 않았다.

한국야구위원회(KBO) 사무국이 대표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해 11월 '케이 베이스볼 시리즈'를 마련해 체코, 일본과 두 차례씩 평가전을 치른 것까지 포함하면 류지현호의 준비 기간은 더욱 늘어난다.

한국 야구대표팀 선수들은 21일 1차 캠프를 마친 뒤 각자 소속팀으로 복귀하고, 2월 15일 오키나와 2차 캠프에 합류한다.

WBC에 출전하는 최종 명단 30명은 2월 3일 확정할 예정이라 오키나와 캠프는 WBC 승선을 확정한 정예 선수들끼리 치른다.

이후 WBC 사무국에서 마련한 공식 연습 일정에 따라 일본 오사카로 이동해 한신 타이거스(3월 2일), 오릭스 버펄로스(3일)와 2경기를 치르고 결전지 도쿄에 입성한다.

우리나라는 일본 도쿄돔에서 체코(3월 5일), 일본(7일), 대만(8일), 호주(9일)와 C조 조별리그를 치른다.

/연합뉴스